



## 국내 불교계 최초 '밀교개론' 편찬

### 본 종 『밀교연구소』, 동국대학교와 공동작업

‘원만회향 기원법회’ 봉행  
지난 4월 13일, 본산 총지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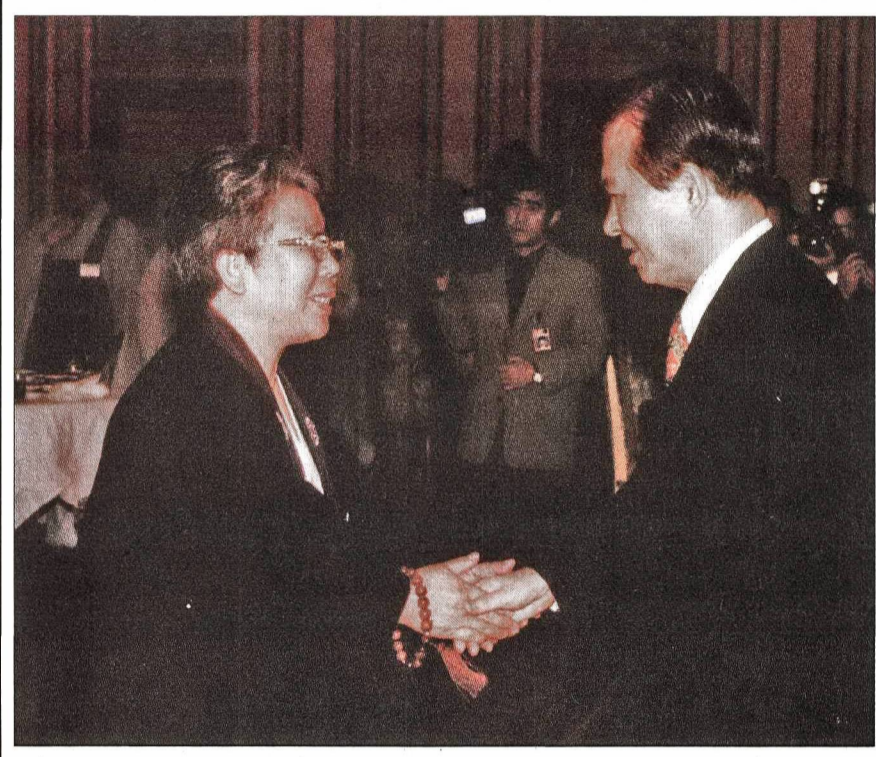
본 종단 주관으로 한국 불교계 최초로 ‘밀교개론’을 편찬하게 된다. 종단 밀교연구소는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작업에 들어가 금년 4월에 개론서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 이 밀교개론의 편찬은 종단의 숙원 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이를 계획하여 왔던 것으로 지난 11월 추기 스승강공회 이후 편찬작업이 구체화 되었다.

본 편찬작업은 불교학계의 원로 교수인 정태혁 박사를 모시고 동국대 서운길 교수의 책임하에 진행하게 된다. 지난 11월 착수에 들어간 집필진은 그동안 국내외의 밀교관련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상호 비교검토를 거친 후 개론서의 목차와 내용 선정, 자료 정리 등의 구체적인 작업을 해왔다. 먼저 기초작업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지난 4월경에 개론서의 목차를 최종 결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올 가을 즈음, 본 개론서의 1차 집필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으로 이 개론서는 승단 스승 강공교재로써 뿐만 아니라 교도들을 대

으로 한 기초강의 교재는 물론, 종립 동해중학교의 종교교육 교재로도 활용될 방침이어서 종단입장에서 거는 기대는 무척 큰 것이 사실. 또한 종단 뿐만 아니라 교계와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본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밀교개론 편찬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하는 불사가 봉행되기도 하였다. 이날 법회는 총지와 통리원장과 주무기관의 효강 법장원장, 서울 지역 스승님, 집필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총지와 통리원장은 “한국밀교를 대표하는 본 종단이 일대불사인 ‘밀교개론’편찬을 착수하였다는 사실은 종단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불사”라고 규정하고 “이 불사에 동참하는 실무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단의 승직자나 종무원, 교도 모두가 원만회향을 위해 일심으로 응맹정진 서원불공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필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하기를 발원하였다. 또 효강 법장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근현대 불교에서 있어서 새롭게 밀교를 중흥시킨 본 종단의 열원이기도 하였거니와, 때를 같이 하여 학계에서도 밀교의 학문적 개척자 역할을 해주신 전 동국대학교 정태혁 박



▲ 본 종단 총지와 통리원장은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열린 ‘불교종단 대표 및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불교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화합을 나누었다.

사님과 현직에서 지금도 학문연구와 후학지도에 애쓰시는 서운길 교수님께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밀교개론 공동편찬에 선택 뜻을 표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편찬 실무자인 서운길교수는 경과보고와 함께 편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1차 집필 완료 때까지 집필진들은 윤동회를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집필방향, 용어사용과 표현방법을 논의,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 불기 2543년 봉축 중령법어

##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뇌와 번민에서 깨달음이 ……



중령 룡정 대종사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여 그 분의 탄생을, 그 분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그 의미·내용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서 결국 즐거움이나 미소로써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뇌와 번민을 통하여 깨달으신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뱀새니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그리고 보면 고뇌와 번민도 사치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이여, 우리 모두 이 힘든 시대의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하지 말고 환영합시다. 이 고마운 고통들이 대처하기에 따라 우리들을 불보살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들은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접하고, 그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저녁 30분씩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기의 마음을 찰나도 놓치지 말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꽃은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좋은 날, 우리들은 그 분께 구경하지만 말고 그 분의 가르침을 한 가지씩이라도 몸소 실천에 옮겨 봅시다. 그러면 이 날이 언젠가 우리 모두의 생일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일년 365일 모두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이 날을 축복합니다. 음미나반메흠

불기 2543년 5월 22일

## ‘진호국가’를 위한 하반기 49일불공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나라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진호국가 하반기 49일 대불공’이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각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특히 이번 49일 불공은 회향일 7월 15일이 ‘우란분절’로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량조상을 위한 ‘49일

불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든 교도들은 49일 동안 나라와 국가를 위한 불공과 함께 ‘선량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게 된다.

또한 불공을 회향한 후에는 교구별로 방생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 봉축 연등행사 다채롭게 열려...



▲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안정과 화합으로 세상을 따스하게’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불기 2543년 봉축연등행사’가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대교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 국민대화합과 남북통일을 기원

### 전방 칠성OP서 봉축점등식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대화합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칠성OP 봉축점등식이 지난 11일 서부전선 칠성전망대에서 본 종단 주관으로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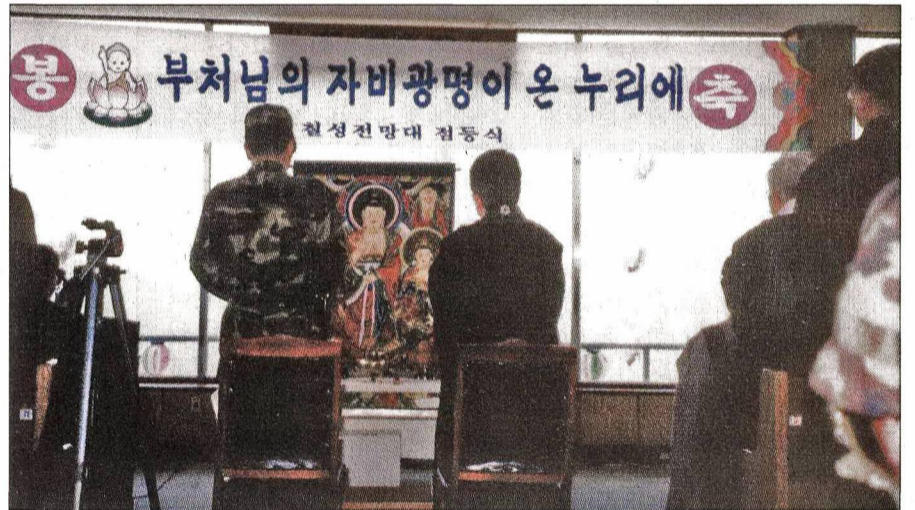
이날 점등식은 본종 총지와 통리원장을 비롯한 승단 스승님과 종도, 장병, 군인가족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식전행사로 총지종 신도들의 풍물놀이와 고전무용의 공연이 펼쳐졌다. 점등식 법회가 시작되면서 남북이 가로 놓인 철책선에는 찬불가의 은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개회사와 함께 삼귀의, 참회가로 시작된 점등식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고, 연등점화에는 본종 총지와 통리원장과 의강 부산경남교구장, 원로 스승님, 사단장 등이 실시했다.

이날 점등식에서 총지와 통리원장은 법어를 통해 “우리 총지종은 매년 진호국가불사를 범종단적으로 거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자”고 교설하였다.

이어 부산 경남교구장 의강 대정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면서 이 등불로써 중생들의 미망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 칠천만 겨레의 가슴을 열고 인류평화의 빛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하였다.

한편 총지와 통리원장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군부대에 봉축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점등행사는 제1부의 점등식 법회와 제2부 대화로 나눠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 지난 5월 11일 칠성전망대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 불기 2543('99)년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일정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중요행사	1. 연등축제	불기2543('99) 5.16(일) 오전10시~오후10시	우정국로, 동대문운동장 → 종로→ 조계사	봉축위원회	
	2. 봉축 법요식	불기2543('99) 5.22(토) 오전10시	조계사	봉축위원회/조계사	
	3. 시청앞 점등식	불기2543('99) 5.12(수) 오후7시	시청앞 광장	봉축위원회	
	4. 애기봉 OP점등식	불기2543('99) 4.22(목) 오후 6시 30분	애기봉 OP	봉축위원회/해빙정봉사	
	5. 발심정진주간	불기2543('99) 5.16~5.22	각 사찰, 단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경축행사	1. 꽃꽂이 전시회	4.22 ~ 4.23	도안로2층 에메랄드룸	한국불교꽃예술회	771-4500
	2. 부모은중송	4.30 ~ 5.1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2273-0237
	3. 봉축 “수행목공예품전”	5.2 ~ 5.11	용진갤러리	육현장연구원	(0584) 653-6788
	4. 제11회 연꽃노래잔치	4.18(예선) 5.2(본선)	불교문화교육관 동국대 중경당	서울불교청년회	730-9108
	5. 부처님 그림그리기대회	5.5(수) 10:00	봉은사	원간 '불광' 목아름교박물관	420-3300
	6. 봉축기념 연주회	5.6(목) 19:00	국립극장 소극장	불교교육연구원	725-7527
	7. 동국문화예술제	5.6(목) 19:00 ~ 21:00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260-3606
	8. 불학연구소 학술세미나	5.7(금) 10:00 ~ 17:00	중앙승가대학 정경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732-4923-4
	9. 재가불자 심포지움	5.7(금) 18:00	조계사 문화교육관	대한불교조계종 재가연대	725-6231
	10. 우리 옷 바자회	5.8 ~ 5.16	조계사 내	조계사	732-2183
	11.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5.9(일) 14:00	조계사 내	파라미터/전국교법사단	723-6165
	12. 참나를 찾는 청소년·어린이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5.9(일) 10:00	노원구 서천사	수덕사 서울로교회 서천사	682-5055
	13. 제3회 불교사경대회	5.9 ~ 5.10	미경 (서울·지방)	동방연서회	733-0131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경축행사	14. 봉축기념사진전	5.15 ~ 5.22	조계사 내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	2266-0302
	15. 제1회 인권문화제	5.19(수) 19:00	조계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725-4277
	16. 열기구 축제	5.21 ~ 5.22	여의도 둔치	중앙선교회	733-7277
	17. 봉축 기념 토론회	5.20 (목) 15:00	조계사 문화교육관	민족화합포추진위	733-2557
	18. 안숙선 판소리 '부처님 일대기'	5.2(일)	도안사	도안사	0334) 676-8700
	19. 봉축기념 학술대회	5.31(월)	불교회관 1층	한국교수불자연합회	720-6618
	20. 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30(일) 14:00 ~ 18:00	동국대 중경당	청소년교화연합회	735-8165
	21. 불교무용단 창단공연 '넋의 소리'	6.3 ~ 6.4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순제현무용단	2260-3420
	22. 전통등 전시회	5.7 ~ 5.16 5.17 ~ 5.20	인천신세계백화점 서울시내 사찰	전통등연구회	723-0306
	1. 제1회 장애인 불교성지순례	4.14	여주 신록사	사회복지재단	723-5101
	2. 장애인 날 기념행사	4.18	서울랜드	원신회	720-4528
	3. 자비의 현열운동	5.1 ~ 5.31	조계사 내	파라미터청소년연맹	723-6165
4. 노인재소자 위안잔치	5.7 ~ 5.31	청송교도소	백련장학회	322-3526	
5.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등을 밝히는 작은 마당	5.9	서울역	대학생불교연합	732-0239	
6. 자비의 등 밝히기	5.3 ~ 5.22	장충공원	우리는 신우	2278-8672	
7. 군장병부자 위문품보내기	5월 15일 전후	각 군부대	군불교진흥회	749-5135	
8. 화강 유언 서약 및 생명나눔 캠페인	5.16	계동행원 구간	생명나눔선교회	734-8050	
9. 무차연등회 및 영산대제	5.17 ~ 5.22	탑골공원	불교자원봉사자연회	723-6258	
10. 결식아동돕기 작은음악회	5.17 ~ 5.22	탑골공원	불교자원봉사자연회	723-6258	
11. 장애인 나눔이	5.30(일)	탑골공원	우리는 신우	2278-8672	
12. 수화 찬불가 발표회	5.30(일)	불교방송 3층 법당	광림사 연회복지학원	2202-5831	



# 서울시로부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위탁받아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내 병설로 4월 부터 업무 개시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개관 2개월만에 정원을 넘어서 입소 희망자가 대기할 정도로 지역사회복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사진은 노인생일잔치의 흥겨운 한 때.

우리 종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내에 지난 4월 1일부터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문을 열고 한창 분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고령화 사회의 현안 해결에 일조를 기여하게 된다.

그간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대한어머니회가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저조한 실적과 노인복지 시설에 취업센터를 두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2/4분기 부터 우리 종단이 운영하게 된 것이다.

취업센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앙센터에서 전문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취업정보와 아울러 자체 개발하는 구인처, 여기에 작년 2월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불교종단별 소비자보호위 부설 '오뚜기모임터'를 운영하며 축적하였던 성과 등을 활용, 구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많은 구인구직 희망자가 접수하여 점차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신규

로 상담원(사회복지사 1급) 2인을 공모하여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기존 직원 7명과 함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종단의 위상 또한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사업개시 2개월만에 시설의 정원을 넘어서 이용 희망자는 당분간 결원이 생길 때를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 종단의 지대한 관심과 복지센터의 전직원이 지심으로 정성을 다하게 된 결과로서 대단히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복지센터는 부처님 오신 날이든 5월에 기존의 프로그램인 생일잔치, 이미용서비스 건강잔치 및 물리치료, 은빛교실, 급식 등과는 별도로 아보나들이와 특별히 '노인의 해'를 맞아 영정 및 가족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

### ■ 복지센터 직원현황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직 위	성명(나이)	최종학교 / 자격
관 장	여익구(53)	동국대 / 사회복지사 1급
부 장	조영표(39)	동국대
사 회 복지사	류승하(33)	일본 대경대 / 사회복지사 1급
물 리 치료사	조 경(32)	충북대 / 물리치료사
생 활 보조원	서영희(54)	방송통신대
보조원	김 옥(50)	동국대학원
취 사	박경란(41)	수도여자사대 / 사회복지사 1급

병설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

직 위	성명(나이)	최종학교 / 자격
선 임 담당원	윤원순(25)	성심여자대 / 사회복지사 1급
상담원	서수정(28)	중앙대 / 사회복지사 1급

## 社 說

###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고통의 근원은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상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다름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주위의 환경과는 달리 여전히 전회 구태를 벗지 못한 '의식의 정체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한 사회의 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다 시피 하는 것은 그 사회를 규정하는 '상부구조'에 있다고 할 때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치 구조가 곧 의식의 정체성을 불렀고 그것이 실상의 원인이 되어 국가경쟁의 패권을 물러오게 된 것이다.

튼튼한 반공주의와 변함없는 냉전적 사고, 정부와 유착한 경영, 거대한 외형에 부실한 내용, 방만하고 비대한 정부조직, 굳은 대로 굳은 관료들과 그들의 갈잡은 권위주의, 형식을 고집하며 창의성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암적 요인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불만만 늘어놓을 뿐 자신이 나서서 적극 개선하고 바르게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타성이 문제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이런 고질병을 안고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동근 구멍에 네모난 막대를 끼우려는 것이다. 서방의 금융권에 나라의 정책을 맡겨야 하는, 경제식민통치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질병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함을 통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전담하면서 '개혁'을 위해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폐단이 언제부터인가 다른 곳도 아닌 우리의 내부, 우리 자신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를 염려하면서도 그것을 당당히 정면으로 부딪

혀 개선하려는 주체적 실천에는 지극히 몸을 사리고 있으며 남의 고단이나 종단 혹은 타사원의 호조건만을 부각시켜 자신의 부족함을 은근히 감추려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공적사회의 복지부동이 무색할 정도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있으며 입으로는 종단의 환골탈태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가 역력하기만 하다. 공론만 무성할 뿐 정작 정책으로 입안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책임성을 찾기가 어렵다.

옛 어른의 경책처럼 수처자 주하는 자세, 즉 어디에서 무슨 상황에 맞닥뜨리면 간에 항상 주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아말로 '우리 불제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다시 말해 시시로 변하여 가는 사회와 개인의 면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항상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를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늘 객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기껏 손님 정도로 그치고 말 인생이라면 실로 마지막 길에서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는 그간 사회를 이끌었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개혁해야 함을 통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전담하면서 '개혁'을 위해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폐단이 언제부터인가 다른 곳도 아닌 우리의 내부, 우리 자신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를 염려하면서도 그것을 당당히 정면으로 부딪

## 창종 및 원로 스승 육성녹음 본격 착수

### 본종 교사(敎史) 자료로 활용, 창종 및 교화·신행 등 다양한 내용

앞으로 본 종의 교사(敎史)자료에 창종 및 원로 스승들의 육성 녹음이 최대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의 교사자료나 종단소개책 항상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를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늘 객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기껏 손님 정도로 그치고 말 인생이라면 실로 마지막 길에서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종 법장원에서는 '창종 및 원로 스승님'들을 대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육성녹음을 청취·녹음하여 교사편찬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전

## 불교기초교리강좌 재개

금년 1월말 강의를 잠시 중단하였던 '불교기초강좌'가 다시 열리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종무원들의 요청으로 열렸던 본 강좌는 그 동안 새해불공, 49일불공 등으로 열리지 않았다가 금년 춘기강공회 이후 종도들의 강좌재개 요청으로 6월 초부터 열리게 된다. 이번 강좌는 지난 4월경 본

### 5명의 스승님 법계 품수

지난 4월 1일, '종사' '지수' 등에 품수

지난 4월 1일자로 승단의 중진 스승님을 비롯한 총 5명의 스승님들이 '종사', '지수' 등의 법계를 품수받았다. 법계를 품수받은 스승님은 다음과 같다.

울산 실보사 해암 대정사가 '종사'로, 실보사 최상관 대전수가 '지수'로, 경주 국광사 정일해 전수가 '대진수'로, 충무 단향사 해정 대법사가 '정사'로, 본산 총지사 수심정 인사가 '대인사'로 각각 법계를 품수받았다.

## 『결혼상담』신청 쇄도



▲결혼상담 중에 잠시 기념촬영.(가운데가 민혜경소장, 오른쪽은 사무장과 자원봉사자)

지난해 9월 총지종 전국신도회 경인지구회에서 개원하였던 '결혼상담소', 8개월동안의 활동이 공평하다.

그동안 전국 사원과 연계하여 많은 선남선녀들이 문의를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접수된 인원만도 100여명이 넘어 사무장 등 인원 보충을 할만큼 일이 바빠졌다.

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배우자가 어울릴지 결정짓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민스럽다는 민혜경(전국신도회 경인지구 지회장) 결혼상담소장은 "선남선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혼문제를 쉽게 대할 수 있었습니까?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것만큼 원만한 결혼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결혼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련연락처 8면)

결혼상담소는 신도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도 무료, 무료 양로원 설립을 위해 개원된 것. 때문에 결혼상담을 위한 자원봉사 희망자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제 총지종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며 새로운 신행장소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한마음 결혼상담소로 전화를 하자. (02) 553-0770

### 바로잡습니다

◆지난 제13호 중 1면 종조법설집에서 '진애심'은 '진애심'의 잘못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지난 제13호 2면 인사 승직발령 기사 중에서 '경월'을 '경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지난 제13호 4면 기사 중 3.1 운동 '제82주년'은 '제80주년'의 잘못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 본종 예방

지난 4월 13일, 본종 통리원장과 환담



▲ 지난 4월 13일 총지종 통리원장과 효강 법장원장, 통리원 임원이 본종을 예방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본종 총지종 통리원장과 효강 법장원장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예방을 받고 불교계 현안과 종단간 대화함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환담하였다.

이번 예방은 지난해 조계종 사태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종단간 대화함을 위해 종단협 소속 회원 종단을 순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종단협 산하 각 위

원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본종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업현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여러 종단 보다 최우선으로 예방하게 된 것.

이날 예방에서 고산스님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 성장한 본종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서원 당(법당), 연구소, 종무실 등을 세심하게 둘러보았다.

## 제53회 춘기 강공회 원만 회향

지난 4월 20일~23일, 본산 총지사



▲ 4월 20일 개강식에서 종령 특정 대중사에서 강론을 하셨다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통리원과 중앙교육원·법장원 공동 주최로 제53회 춘기강공회가 개최됐다.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한 강공회는 주로 교리강의와 경강공으로 진행되었다.

### 총기 27년 결산사무감사 실시

지난 3월 16일~18일, 통리원 사무실에서

본종 사무감사(사무감사원 원봉 대정사)은 지난 3월 16일~18일 3일간 통리원, 법장원, 중앙교육원, 총지종사무를 대상으로 총기 27년(1998년) 결산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지난 4월 19일과 20일에 개최된 제53회 춘기강공회의 원의회, 총의회에 보고되었다.

### 노인·실직자에 무료급식

3월 18일, 4월 15일, 실직자·민일사

본종 실직자(주교 선도원 전수)와 민일사(주교 원승 정사)는 각각 지난 3월 18일, 4월 15일 탑골공원에서 무의탁노인 및 실직자 3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활동을 펼쳤다. 이날은 3백여명의 노인·실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다. 무료급식은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 기사제보

전화/ (02) 552-1080~3 전송/ (02) 552-1082 홈페이지 www.chongji.or.kr

## 동 정

### 총지종 통리원장

◆총지종 통리원장은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 봉행된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하였다.  
◆지난 5월 11일 7사단 전방 OP 철성전담대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본산 총지사·통리원에서 개최된 'btn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지난 5월 6일 btn 허문도 신임사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자민련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자민련 불자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마포 석불사에서 개최된 불교텔레비전 긴급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선정을 논의하였다.

### 효강 법장원장

◆효강 법장원장은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 조계종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 10대 중정 해안스님 추대식'에 참석했다.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 참석했다.  
◆지난 5월 10일 본산 총지사·통리원에서 개최된 'btn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지난 4월 22일 마포 석불사에서 개최된 불교텔레비전 긴급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지난 3월 23일 한일불교우호 교류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 결 혼

통리원 근무 진일심 사무의 3녀 이진아 양의 결혼식이 지난 5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동웨딩문화센터에서 있었다.

### 잠깐! 향기가 있는 곳, 잠시 쉬었다 갑시다

옛날 한 농부는 항상 날개만을 먹었는데 어느날 이웃집에 갔다가 우연히 깨를 먹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맛이 날개보다 훨씬 더 고소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볶은 깨는 정말 맛이 있구나. 만약 깨를 아예 볶아서 밭에 뿌린다면 이처럼 맛있는

깨를 한꺼번에 많이 수확할 수 있겠구나.' 그는 깨를 볶아서 밭에 뿌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밭에서는 싹이 트지 않았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지요. 순리에 어긋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밀교교리 1

# 성불(成佛)의 해제(楷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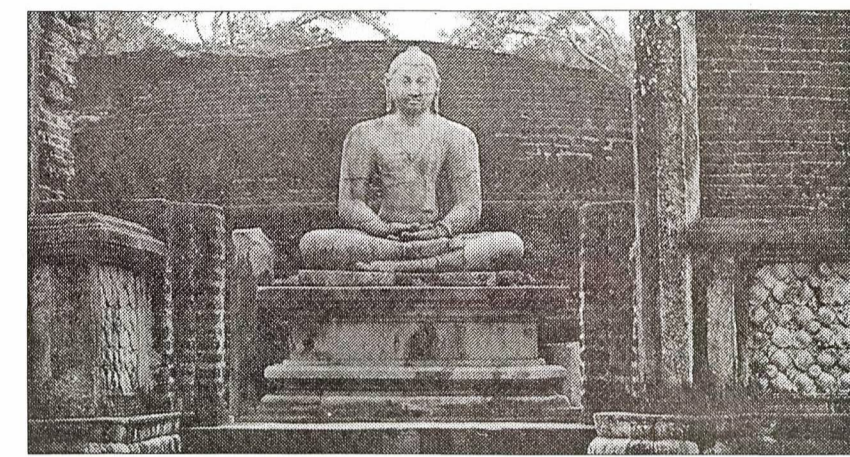
우리들은 성불(成佛)의 방편(方便)으로서 삼밀관행(三密觀行)의 필요성과 또한 이것이 수승(殊勝)한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성불로의 해제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考察)할까 한다. 생각컨대 당위의 입장에서 말하면 무

결국 번뇌를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다. 무명을 단멸(斷滅)하는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당연히 있어야 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범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요약해서 말하면 무명번뇌(無明煩惱)에 잠겨있기 때문이다.

## 성불 - 자신을 개발하려는 수행이 필요, 결국 우리들의 실천수행의 문제

리들은 본래 깨친 부처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우리 즉,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의연(依然) 미혹(迷惑)된 범부임에는 틀림없다. 존재로서의 우리들 생활은 바로 이대로가 부처로서의 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부처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는 수행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더구나 그 수행의 근본문제는

이 무명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실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로서의 자기 자신을 명백히 인식하려면 반드시 꼭 여실하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더구나 여실지사(如實知自心)에는 마땅히 무엇보다도 번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라 할 수 있다. 여



▲ 밀교에서는 성불의 방편으로 삼밀관행법이 중요시 되고 있다.

기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성불의 해제의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실천 수행에 의하여 여하한 번뇌를 어떻게 해서 제거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로 단후(斷惑)과 증리(證理)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된다.

그러면 밀교에 있어서 이 단후와 증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삼검(三劫), 육무의(六無

畏), 십지(十地)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우선 구별하여 말하면 삼검과 육무의는 오로지 차경문(遮障門) 즉, 부정적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단후(斷惑)의 문제에 대하여 설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하여 십지(十地)는 표덕문(表德門) 즉, 긍정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증리(證理)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효강 법장원장

### 지 상 설 법

## 마음을 닦는 수행



수계사 주교 혜산 대장사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가르침' 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표현이라도, '내가 닦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어떤 가르침, 어떤 수행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 하였듯이 일체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서 짓는 것이요, 싫어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원수되고, 또 마냥 좋았던 사람이 공연히 미워지는 것도 다 내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불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종교이며, 부처의 위대한 지혜를 지니면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위대한 것이며, 증생에게 엄청난 사악함이 있다면 그 인간의 마음 또한 그렇게 사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은 미묘하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한하며, 때에 따라 선(善)에 결합하여 선업(善業)을 짓기도 하고, 악의(惡意)에 결합하여 악업(惡業)을 짓기도 합니다. 번뇌를 일으킬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으며, 번뇌를 일으켜 생사에 해매고 번뇌를 말하여 열반에 안주하기도 하는 등 그 마음 자체가 증생심 그대로이기 때문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증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증생이 깨끗하다. 마치 화가 하얀 바탕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도 오온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사에 묶이고 오온에 대한 여실지(如實知)로 해탈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마음은 깨달음을 못얻어 어두운 증생으로 만든가 하면, 깨달음을 열어 위대한 부처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화엄경

##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 내 마음 닦는 것이 곧 불교의 수행

그러므로 모든 법의 근본은 실로 마음이니, 이 마음을 바로 알고 닦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수행을 했다 할 수 없고,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바르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며 무용지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마음 닦는 일에 정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깨달음도 구하는바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수행한다고 야단법석이라도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할까요? 마음의 본성, 그 체성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마음, 올바른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하루 하다가 말 일이겠습니까. 쉬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해나가야 할 수행공부인 것입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루에도 수십번 바뀌는 이 마음은 도대체

"증생과 마음과 부처의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자들은 마음을 닦아 성불에 이르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또 아는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는데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살법시각때마다 듣는 '팔정도' '육바라밀'을 들 수 있습니다. 팔정도 육바라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육마니반메혹'을 염송할 때만, '팔정도' '육바라밀'의 보살도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하심할 줄 알고, 남의 좋은 일에 수희(隨喜)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이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하루 하다가 말 일이겠습니까. 쉬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해나가야 할 수행공부인 것입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루에도 수십번 바뀌는 이 마음은 도대체

### 만다라 소개4

## 만다라와 총지종의 교상(敎相)

### 종단의 본존이 곧 만다라, 남자관은 의궤화된 종자만다라의 일종

밀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을 사만(四曼)으로 설명하고 있다. 육대(六六)의 연기(緣起)로써 우주(宇宙)가 생겨나고 삼라만상이 나타났으니 육대로 인하여 생긴 이 형상(形相)의 제법(諸法)을 사종(四種)으로 분류한 것이 바로 사만(四曼)이다. 사만다라는 대만다라(大曼荼羅), 삼매아만다라(三昧耶曼荼羅), 법만다라(法曼荼羅),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의 사종이다.

대만다라는 우주만유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제불보살(諸佛菩薩)의 상호구족(相好具足)의 신상(身相)을 나타내는 것이며, 삼매아만다라는 우주만유의 개개의 형상(形相), 즉 제불보살(諸佛菩薩)의 인계(印契)·기장(器仗)·지물(持物)을 말하며, 법만다라는 일체의 언어·음성·문자·명칭으로써 제불보살의 명호·종자를 가리키며, 갈마만다라는 일체 사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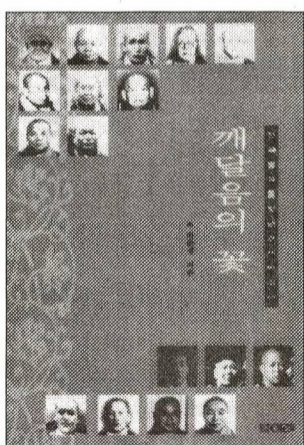
▲ 금강계 종자만다라. 종자만다라는 불보살의 덕을 나타낸 상징적 표상이다. 특히 금강계만다라는 구체적인 실천철학을 도상으로 나타낸 만다라로서 보리심을 본체로 하는 만다라이다

활동·작용으로써 제불보살의 위의동작(威儀動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만의 교리를 본 종의 교상으로 삼고 있

음은 바로 만다라가 우리 종단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숙히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만다라 가운데 법만다라의 종자만다라는 『대일경』의 「전자문만다라행품」, 「자문품」, 「포자품」 등에서 설하기를 '제불보살의 만덕(萬德)을 나타내는 종자(種子)를 통해 불(佛)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행자가 불(佛)의 경계에 들어감을 상징적·형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종자만다라를 다른 말로 문자만다라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문자만다라는 바로 우리 종단의 본존을 가리키고 있다. 즉 '육마니반메혹'의 육자(六字)인 본존은 넓은 의미로써 문자만다라·종자만다라인 것이며 육자(六字)인 본존은 곧 만다라를 모시고 있음을 뜻한다. 또 삼매아결인을 하면서 업장소멸의 종자(種子)를 관하는 '남' 자관도 일종의 종자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불보살의 덕을 진언종자로 나타낸 것이 종자만다라인데 '남' 자관은 바로 일체죄업소멸의 표상으로서 종자만다라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종자만다라는 우리 종단과 낯설지 않으며, 이미 총지종의 의궤 속에 융해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호에서는 '진호국가불사의 만다라관'과 '무상계 계승의 오불 관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화 통리원장



##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 비구니 스님

화엄경은 세상 혹은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경전이다. 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한자에서는 가시적인 꽃을 화(花)로 나타내고, 비가시적인 꽃을 화(華)로 나타낸다. 두 꽃은 모두 아름답고 맑고 예쁘고 향기롭고 값진 것이지만, 꽃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비구니 스님들은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들이다. 한승원 '후기' 중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진법자로서, 결을 입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조금도 부속함이 없는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비구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렸던 것이다. 다소 흐트러졌던 수행자들은 이 책에 실린 선학(先學) 스님들의 삶을 지남으로 삼아 추스리고, 아직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이들은 이 책을 읽고 발심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권유스님 '후기' 중에서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살아가는 비구니 스님들을 다시 읽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헤쳐 길을 찾는 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기록이 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문화생활을 일일이 말로 찾아다니며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해유스님 '출간여 부처'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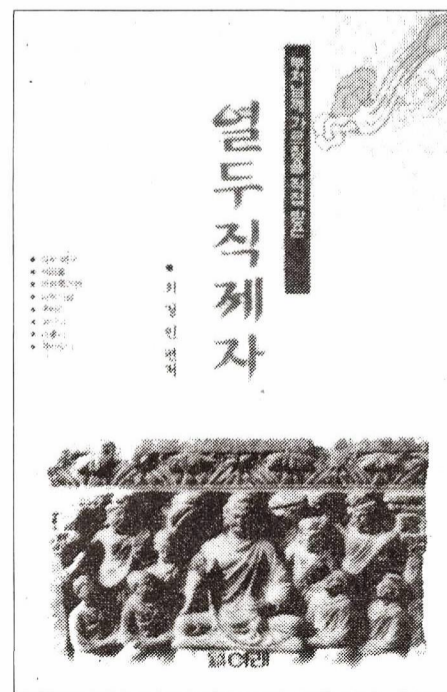
## 한·국·불·교·를·빛·낸·근·세·비·구·니 깨달음의 꽃

하춘생 지음 해도서출판 여래 펴냄 296쪽 7,800원

도서출판 여래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흥빌딩201호 · 전화(02)730-8976 · 팩스(02)723-6801

### 여 / 래 / 신 / 간

## 열두직제자와 함께 하는 "기쁜 만남"



## 열두직제자

부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이

최정인 지음 / 360쪽 / 값 9,000원

여래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흥빌딩 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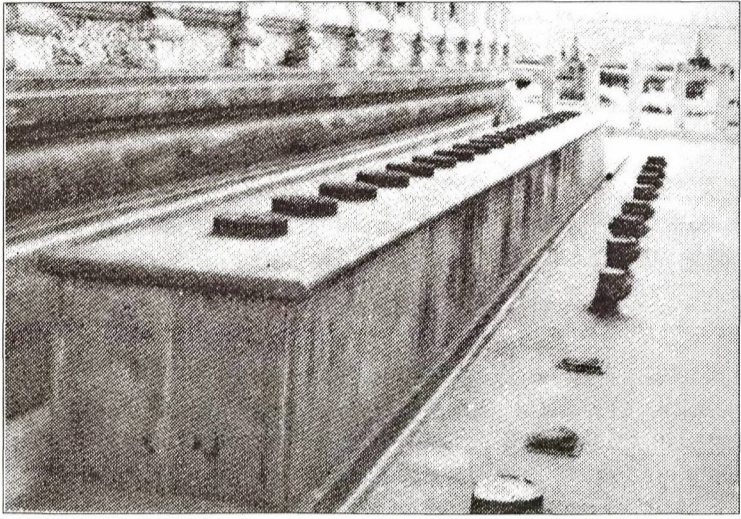
부처님의 출가제자, 세기제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책은 그 가운데 출가제자로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분 상수제자들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직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대학원에서 원시불교를 전공하는 가운데 부처님 일대기를 살피고 있는 과정에서 부처님과 직제자들의 만남 및 활동상황들이 현재까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시극적인 인간적인 정서가 담겨져 있음에 감명을 받아 제작하게 된 것이다. 이 직제자들의 사료는 원역 이암경과 출강을 중심으로 하였고 남방 팔리어 이암경을 보충자료로 삼았다. 역사적 사실은 자료에 의지하였지만 때로는 진실적, 실화적 자료도 채택하여 신앙심을 높이는 데 개술하지 않았다. '책들 내면서' 중에서



불교개설 6

근본불교의 교설 ② - 사성제

정리: 대현(법장원연구원)



▲ 성도 직후 석존은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즐기면서 '붓다가야'의 거리를 거닐었다 한다. 사성제의 진리가 숨쉬고 있는 것 같다.

사성제(四聖諦)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서, 석존이 녹야원에서 5비구를 위하여 설한 최초설법(初轉法輪)의 내용이다. 인간에게 왜 생사(生死)의 괴로움이 발생하며,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멸할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불교의 실천적 원리를 나타내는 불교의 대강(大綱)이다. 사성제 가운데 고(苦)와 집(集)은 미망의 세계의 인과(因果)를 나타내고, 滅과 도는 깨달음의 세계의 인과를 나타낸다.

사성제는 실존하는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며, 고통이 그친 자리와 번뇌 때문에 생긴 고통의 소멸, 즉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사제설은 연기의 이치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강구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고·집·멸·도 의 사제는 성자만이 알 수 있고 범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성제(聖諦)라고 한다.

끓는 미계(迷界)의 과보가 모두 괴로움이라는 뜻이며, 고성제는 삼계에서 생사하는 과보는 불만족스러우며 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는

사성제는 실천적 원리로서 고통의 소멸,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말이다. 불교적 입장에서 심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상(理想)이 없는 무자각(無自覺)의 상태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함부>에서 고성제는 이른바 8경로(八正道)로 말해지는 생(生)·노(老)·병(病)·사(死)·원증회고(怨憎會苦)·애별리고(愛別離苦)·구부득고(求不得苦)·약오성승고(略五陰盛苦)설해하고 있다. 사실 8가지로 나열되지만 앞의 7개는 '요약하면 오취온(五取蘊)·(五陰盛)이고(苦)다'라는 뜻이다. <잡이함>에서는 오온이 괴로움인 까닭을 오온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오온이 괴로움인 것은 그것이 자아로 취착되게 때문인데, 그 자아는 무상하여 노사(老死)가 있게 되므로 자기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취온은 그 자체 속에 본질적인 무상함과 욕(欲)에 의해 구성된 자아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자아가 무상함 속에서 변하여 소멸될 성질의 것이므로 자기의 비람에 어긋나 필경 괴로움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를 삼고(三苦)로 나누기도 하는데, 첫 번째의 고고(苦苦)는 배고픔·질병·춥거나 더운 것, 비바람이나 매맞거나 노동하는 것 따위의 육체적인 괴로움을 말한다.

두 번째의 괴고(壞苦)는 자기가 애착하던 것이 파괴될 때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한다. 세 번째의 행고(行苦)는 현상계의 무상함을 조건으로 해서 느끼게 되는 괴로움으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한 찰나도 쉼 사이없이

변하고 있는 현실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 따위가 그것이다.

2) 집성제(集聖諦)

集은 범어 samudaya의 번역이다. 중생의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煩惱), 갈애(渴愛)·집착(執着)·욕탐(欲貪)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힌 진리이다. 集은 '쌓임'·'모임'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원래는 함께(sam)생기(生起)한다(udaya)는 '생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집기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관념으로 외부의 대상을 실제적인 존재로 세우는 것이다.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은 욕망이나 갈애의 소산으로서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해서 우리는 빠져나오기 힘든 고택(苦海)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석존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무상한 법을 실제적인 존재로 대상화시키는 무지(無知)와 그것을 집착하는 욕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3) 멸성제(滅聖諦)

멸(滅)은 자각이 없는 현실세계의 고뇌와 불안(번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열반이라고 하는 불교의 이상경(理想境)을 말하는 것이다. 번뇌의 원인은 무명(無明)과 갈애(渴愛)이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미혹(迷惑)의 생사를 초월해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경에 대해 근본불교에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이 열반의 법열(法悅)을 맛보게 하기 위한 聖人の 깊은 의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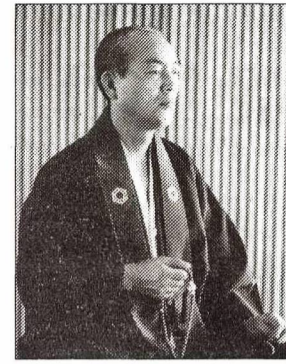
4) 도성제(道聖諦)

도(道)는 멸(滅)에 이르는 길, 곧 열반의 인(因)이 되는 수행으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힌 진리이다. 근본경전에서는 그 실천적 목적으로 팔정도(八正道)를 들고 있는데, 이 인행(因行)으로 말미암아 번뇌(煩惱)와 업을 끊고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나 무위적멸(無爲寂滅)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도(映顯圖)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밀교에서 만다라는 정각을 이룬 불내증(佛內證)의 경지를 가리킨다.

이러한 만다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체적인 형태로써 방형, 원형, 삼각형 등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점은, 만다라가 밀교 가운데서 가장 상징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는 만다라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육바라밀의

실천과 생활화 7

법공 (만보사 주교)

십일(10/1) 회사법

10/1회사법은 수입의 십분의 일(10/1)을 은혜를 준 상대에게 되갚는 행위로 기독교와 불교 및 대다수의 종교에서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신앙적 헌금(獻金)행위로 정착되어있다 하겠습니까.

역사적 기록을 고찰(考察)해보면 중세 유럽 교회에서 널리 행해졌던 의무적 헌금제도(獻金制度)였다 하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기독교 구약 시대의 성서(창세

רות만물이 서로 주고 받는 인과(因果)관계 속에서 필연적인 여수(與受)의 거래가 있게 마련이고 거래여수(去來與受)가 있음에 일률적(一律的)으로 강제(強制)는 없으므로 보편타당한 표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한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 절실히 느낀바입니다만 과수를 비롯 모든 농작물도 매년 일정한 수확과 땅 기운을 유지하려면 필

십일회사법...

은혜를 준 상대에게 되갚는 행위,

미묘 공덕을 증득하여 환희심으로 실천해야...

가-14:20. 레위기 27:30-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십일조를 바침에 기록이 있고(이런 기원으로 오늘날까지 교회의 헌금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슬람 교회에서는 10/2(십분의 이) 헌금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음) 이런 성서의 율법을 근거로 4세기 경부터 당시의 군주가 이 제도를 시민 생활에까지 확대하여 일반 사회의 조세법으로 활용 10/1조를 국민의 의무적(義務的) 조세제도가 되었다고 한다.

동양에 있어서도 '맹자' 같은 분도 수입의 10/1을 조세로 내는 것은 천하의 중정(中正-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올바른 일)이라고 했고 근세의 경제사학들도 10/1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조세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미의 시사성(示唆性)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간생활을 비

연적으로 최소한 소득의 10/1 정도는 거름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攝理)임은 적어도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자연법칙(自然法則)입니다. 따라서 이 10/1 회사법이야말로 천지 대자연의 이치성에도 부합되고 인사(人事)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 매우 이상적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지종의 많은 교도들 중 이 10/1 회사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비울적으로 다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의무적 율법이 아니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10/1 회사의 미묘공덕(微妙功德) 증득하여 환희심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천언만담(千言萬談)의 이보다 실천을 통한 자내증(自內證)으로 행자에게 법을 얻게 합니다. -참고로 총지종의 승직자는 10/2 회사법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밀교용어소사전

만다라

밀교에서 불(佛)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가장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종교적 표시가 만다라이다. 만다라는 범어 Mandala의 음역으로 '단(壇)', '단장(壇場)', '운원구족(輪圓具足)'을 의미한다. 만다라는 원래 인도의 옛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정한 땅을 구획하여 평탄하게 단을 만들어 거기서

여러 신을 모시고 예배공양하던 종교 의식의 장소였다. 이것이 불교 속에 그대로 수용되어 불보살의 공양이나 밀교의 호마법, 관정법 등 모든 의례작법을 행할 때 조성하는 단(壇)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채색으로 불보살을 그려 놓고 종교 의식을 행하였던 장소와 단, 그림을 총칭하고 있다.

운원구족은 비법(秘法)을 닦을 때 마중(魔衆)의 침입을 막기 위해 원형을 그리는데서 '운원(輪圓)이란 말이 쓰여졌고, 그리하여 모든 법을 원만하게 갖추어 결함이 없다는 뜻에서 '구족(具足)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이 만다라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넓은 뜻으로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만다라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고, 좁은 뜻으로는 한 곳에 여러 불보살을 모신 것을 말한다. 후자의 뜻을 좀더 살펴보면, 만다라는 신성한 단장(壇場)이나 영역, 구획에 불보살을 배치한 도화(圖繪)로써 우주의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밀교에서 설한 내재(內在) 즉 초월적인 절대적인 법신 대일여래의 깨달음의 경지를 도화한 것이며, 또 진언행자의 우주적 심리적 영사

看話禪 최고의 지침서



신국판 양장본 552쪽 / 값 18,000원

- 大慧宗果 著
- 如天無比 監修
- 智象 註解

예로부터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는 '六祖壇經을 스승으로 書狀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방 수좌들간에는 모든 것은 다 버려도 결망 속에 이 책만은 짊어지고 다녔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書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의도라고 할 정도로 참선의 바른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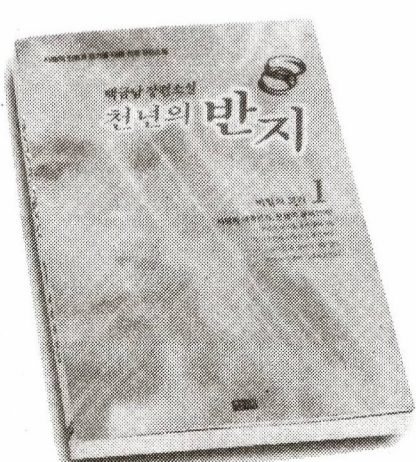
書狀은 大慧宗果(1089~1163) 스님께서 '禪에 관한 여러 가지 要旨'를 사대부들에게 대답해준 62편의 편지글로서 예로부터 參禪의 지도서이며, 禪門의 요지를 간명하고도 직대하게, 철저히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를 처음 대하는 제자들이 향하여 절차나 단계를 두지 않고 그 근원을 바로 보게 하는 날카로운 가르침은千古에 보기 드문 지도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傳統師專門教育院 僧伽大學원장이신 無比스님이 감수하고 동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智象 스님이 번역과 함께 품품한 註解를 달았습니다.



인륜을 거슬러야 했던 우리 사랑의 운명적 비밀!

- 근친상간으로 얽힌 두 가문간의 애증의 역사, 금파반지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



두 가문의 5대에 걸친 운명적인 근친상간과 그에 따른 처절한 증오와 끝없는 복수... 그 속에 피어나는 거역할 수 없는 사랑, 누가 이 연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인연에 이끌려 이 세상에 와서 그 업의 사슬을 스스로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이 소설 속의 그들이 바로 희망일 수 있다." -저자의 말 중에서

세우와 고래가 함께 숨쉬는 바다 창래  
전화 02)313-3200 팩스 02)313-3204

대표전화: 420-3200  
팩시밀리: 420-3400



새로운 세기, 총기 30년

### 특집

# ‘종단 발전을 위한 승직자 설문조사’ 분석

현목의 세상읽기

## 도적의 도(道)와 성인의 속(俗)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실장



장자(莊子)의 거협편에 나오는 얘기다. 장자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도둑의 상징적 인물인 도척에게 그 일당이 질문하였다. “도둑에도 도가 있습니까?” “어디를 간들 도가 없겠는가? 대저 방안에 감추어 둔 것을 미루어 가는 것은 용(勇)이고,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은 의(義)이며,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은 지(知)고, 고르게 나누는 것은 인(仁)이다. 이 다섯 가지 갖추지 못하고서 큰 도둑이 된 자는 천하에 없다.

말하자면 어느 집 어느 구석에 제법 시세가 나가는 재물이 있다는 것을, 잘 발달한 후각으로 알아낼 정도면 성인의 경지에 오른 셈이다. 재물을 훔치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용사라 할 수 있고 일당을 모두 안 전하게 때려 시킨 후에야 자신이 그 집에서 나서는 의리를 갖추어야 진정한 도적이며 또한 어느 집은 털어지고 되고, 어느 집은 그냥 지나칠 줄 알아야 도적으로서의 보신을 하게 되며 훔친 재물을 적당히 나누고 배풀 줄 아는 품성도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큰 도둑, 즉 대도가 된다는 말씀이다. 그 참 도둑의 도라는 것도 도이다 보니 어렵긴 때 일 만인가 보다.

80년대 초반 재벌과 고관의 집을 털었다가,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폐쇄적’로 죄값의 배 이상 감옥에서 일생을 보냈던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일컬어 대도라고 하였는데 그가 바로 장자가 말한 ‘도둑의 도’를 이룬 사람이라는 모 르겠으나 어쨌든 그의 신구불한 실력이나 대범성 등등은 그의 도의 도에 가까이 갔다고 할 수 있겠다. 그가 얼마전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하였는데 최근 한 발법회 했다는, 참으로 신기한 경우까지 연 출하였으니 웃고 남기기에 세상일이 만만치 않다.

나라가 어수선하고보니 대도의 출현도 잦아진다. 얼마전 세간의 화제가 된 ‘고관집털이범’의 경우가 그렇다. 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당시 직후 국제금융계와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실력자의 집, 현직 경찰서장집 등 꽤나 잘나는 집만 털었는데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이다. 그 피해액을 두고 어찌된

영문이지 도둑이 밝힌 절도액수나 물건의 종류에 대해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팔쩍 뛰고 있어 과연 누가 진실이고 누가 속이고 있는지 두고두고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고백보다 피해자의 ‘오리발’이 더 영항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니 사실이 곧 골때리 밝혀지기보다는 그냥 ‘야사’로 남게 된다. 대도 조세형씨의 경우도 그랬으니까. 일단 사실의 진위는 차치하고, 도둑이 밝힌바에 따르면, 고관집에서 돈을 숨기는 방법이 꽤나 재미 있었다. 숨기기 속에서 거액이 나왔는가 하면, 김치냉장고에 어머니마한 액수의 달러를 숨겨 놓고 있었다. 그래야 돈이 씹질 않는데니 그러했겠지만 우리 같이 한두푼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겐 정말 꿈이라도 좋은 한반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을 숨길 수 없다. 하긴, 사과상자 속에 몇 억원의 현찰을 넣어 정치비자금으로 주고 받는 사람들 정도쯤 되는 부류에서야 웃기는 얘기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그네들이 그 돈을 안전한 은행에 두질 않고 집안의 모처에 숨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성격이 좋지 않기에 때문일 것이다. 성격로는 성인 군자입네 하면서도 뒤로는 구런데가 있으니 뚜렷하게 밝은 장소에 숨기지 못하고, 또 생돈을 잃고도 ‘나는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 딱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딱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잡아깎을 틈을 제공하는 과정이 더

#### 종조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 ▲ ‘스승은 매일 교도와 접촉하는 교회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하고 따라서 종단의 성쇠를 좌우하는 두말할 것도 없다.’
- ▲ ‘헌신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저야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화합과 단결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 ‘국가, 사회 또는 한 교단이 흥왕하려면 그 지도자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고급이 일반이므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을 위하고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회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우는 대이적인 위치에서 현재정황에 사명감을 가지고 퇴진없는 정진으로서 종단의 유구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을 거두어 서 우리 총지중의 입교개종의 정신이 중외에 빛나고 세계만방에 불일이 증취하도록 하는데 훌륭한 역군이 될 것’

새삼 종조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까닭은 종조님께서도 확고하게 지적하셨듯이 우리 종단에서 스승의 책임과 위상은 실로 막중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전법 교회의 제일선에 있는 ‘함도’며 아울러 발전의 근원이며 미래를 가늠할 지표가 곧 스승이다. 특히 출가 사찰의 주지의 승단이 교단의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불교계에서 수행과 교화를 생활 속에서 합일시켜 진심으로 대승불교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종단은 스승의 의식과 실천에 따라 종단의 흥망이 달려 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종단은 스승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전법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과 대안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다름 아니다. 객관적인 현실 진단이 없이는 그 대안의 강구나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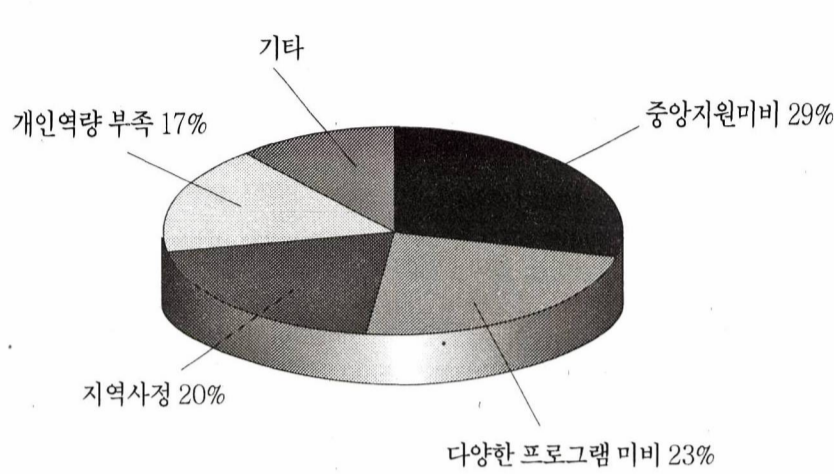
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4%가 종무원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현재 개별 사원의 현황이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가령 다양한 전법활동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개별 사원 차원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을 점검해야 하며 종단에서 보다 많은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전법활동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지역정보나 현황파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연络을 활용하는 정도가 총13%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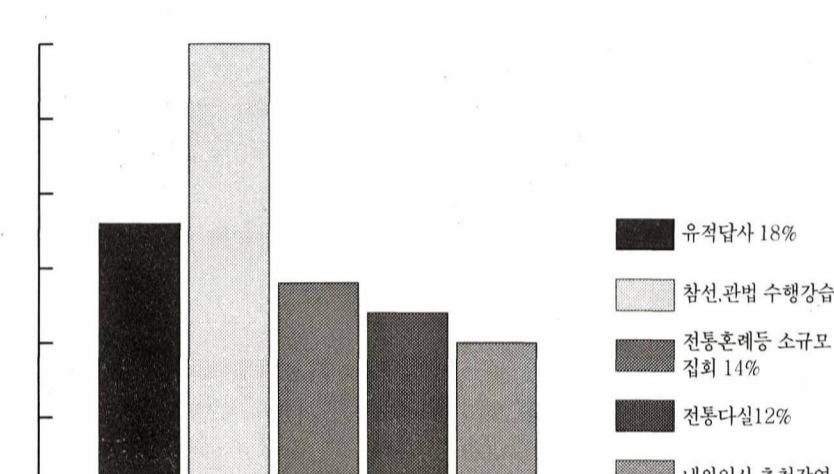
즉 지역정보지 활용이 4%, 지역일간지 9%, 개인적인 방법이 4%로 드러나 는 등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정보 활용이 한자리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는 여전히 지역상황에 적합한 지역 전법활동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종단의 지역적 위상은 전법교화의 일선에 있는 스승들의 노력에 따라 자리매김이 되는데 그런 스승들의 지역내 정착, 기관장 등 주요 인사와의 교류가 없는 민촌(71%) 지역내 영

#### ◆ 전법활동이 미미한 원인



#### ◆ 문화프로그램 선호도



해서도 교재부족 및 교재의 형식과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모두 87%에 달하고 있다. 설법 주제에 있어서도 종단적으로 공통된 주제 및 문안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주문이 9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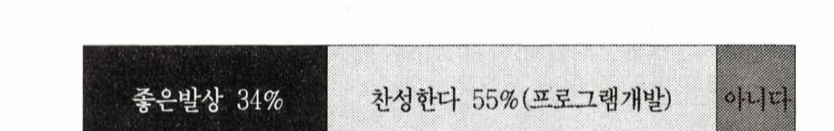
시급하다는 응답은 81%에 달하는 높은 수치는, 현재 전법활동과 종단 홍보를 위한 기본적 홍보물이 절대적으로 시급함을 말해준다.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도가 0%의 응답

● 지역내 주요인사와 교류가 없다. 71%

● 전법에 필요한 법요집, 교재 등 형식·내용에 분제있다 87%

● 종단적으로 공통된 설법주제 및 문안 정기제공 필요 97%

#### ◆ 문화공간으로서 사원개발



종단의 기존 프로그램 개선(21%)보다는 단위 사원의 지역조사(21%)를 기초로 연별별로 적합한 프로그램(24%) 개발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계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전법프로그램과 홍보(총 80%)는 응답자의 절대수가 지금 시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사찰·사원에 비해 전법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74%)고 답변한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전법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종양의 지원 부족(29%)도 들고 있으나 그의 다른 원인이 70%를 넘고 있다. 즉 개인역량 부족(17%)이나 지역의 비불교적 영향(20%), 다양한 프로그램 미비(23%) 등의 문제도 전법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전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전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법행사가 바람직하며 긍정적(79%)하는 것에 절대다수가 응답하고 있는 것은 전법활동의 합리적인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종단의 정보 이용도에 있어 적극적 이용이 74%에 이른 것은 반가운 결과이다.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매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 제작과 활용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법활동을 위해 우리 종단을 손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16%에 그친 반면에

을 보인 것은 스승들의 정보화 마인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나타났다. 이 점은 종단에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컴퓨터 사용법에 대해 3일 정도의 연수로 가능하다면 받겠다는 응답이 85%에 달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반증하는 것이다.

#### ◆ 종단발전을 총괄 기획하고 추진할 특별기획단의 설치

종단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 청년층 포교와 관련해서는 대상인 청소년층과 상당한 인식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향후에도 종단에서 청소년 포교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97년 중앙승가대에서 실시한 청소년 포교여론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절에 나가는 이유로는 '마음의 안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종단에서는 부모의 권유가 절대다수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청소년 등 젊은층에 대한 전법 활동이 실제 그들의 정서와 요구를 정확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포교해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과 어린이에 65%에 이르고, 청장년·중년·여성 17%에 불과한 응답은 불자들 사이에 청소년 포교를 중시하는 것으로 반가운 결과이다.

최근 들어 타종단에서는 포교를 위하여 종단 사찰·사원을 문화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 하고 있고, 지역대중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가부의 견해가 있었음도 밝힌다. 종단 내적 자료로 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자와 포살의 정신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여 설문조사와 결과에 대한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함으로써 건 강한 발전의 비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자의 견해를 좇아 공개하건대 부디 전국 각지에서 전법 교화의 수레를 굴리고 있는 스승들과 불제자들의 많은 의견이 밑물처럼 들어오길 바란다.

#### ◆ 전법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

최근 불교계에서는 기독교 등 이교도의 급격한 증가추세의 영향으로 포교 활성화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예컨대 신도관리의 체계화, 도심포교 등이 그것이다. 다행히 우리 종단의 사원은 약 84%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포교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 성격이 58%가 주택가 또는 아파트단지이며, 18%가 상업지역에 사원이 있음으로써, 신도포교를 위한 좋은 입지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전법프로그램은 압도적으로 불공(64%)에만 치우쳐 있다. 재공양(13%)까지를 포함한다면 77%에 이르고 있다. 그 외의 전법프로그램으로 계층별 법회(7%)나 방생(9%), 성지순례(7%) 등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개별사원에 있어 신도수나 종무원 수를 평가할 때 전법활동을 위한 기본

항력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교적 활발히 지역인사들과 교류하는 것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스승들의 대지역사회 영향력, 대표성, 상징성 등이 고립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앞으로 곧 승인이 날 예정인 불교 총지중사회복지법인의 지역활동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지역내 스승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위 사원이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어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행정처리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만 선별(13%)하거나, 사원의 각종 불사로 중앙업무에 다소 소극적(11%)이다. 라는 응답은 소극적 참여 의식을 의미한다. 개별 사원이 열악할 수록 종단에 적극 협조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전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종단과 개별 사원간의 통일성 부재는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없다'가 11%에 달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실로 대안이 요구된다.

#### ◆ 전법교화의 문제점과 대안

현재 종단 전법프로그램과 관련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재불사의 통일 ▷불공시간의 조정 ▷학생회 등 계층별 법회 분리(차별화) ▷사원신축 등을 제기하고 있다.

대상별 시급한 프로그램으로는 무엇보다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전법 홍보물 개발 보급(35%)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전법에 필요한 법요집, 교재에 대

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의식과도 결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타종단의 이러한 포교활동을 바라보는 우리 종단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삽입하였는데 그 결과 사원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데 대해 '좋은 발상이다(34%), 프로그램만 좋다면 찬성이다(55%)는 긍정적 답변이 모두 89%라는 압도적 수치를 이루고 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주님, 직장인을 위한 참선,관법 수행처(30%)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한국불교 밀교성지 등 유적답사(18%) 추진 ▷전통혼례, 소규모 집회 등의 장소 제공(14%) ▷전통차를 마시며 답사를 나눌 수 있는 다실(12%) ▷교계 내외인사를 초청 또는 강연(10%) 등으로 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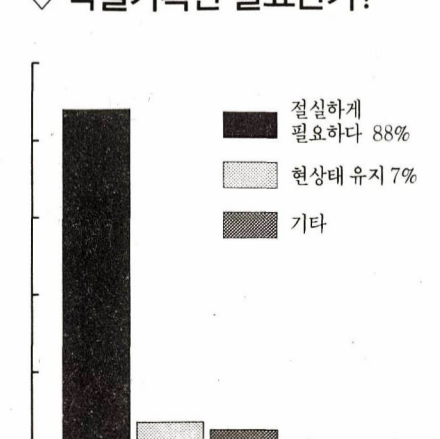
#### ◆ 특별기획단 필요한가?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는 문항 30번 '총기30년' 특별기획단 질의 항목에 집약적으로 드러났다. '총기30년' 특별기획단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8%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 발전 정책 수립에 앞서 현상태 유지가 우선(7%)이라고 답변한 것은 여전히 종단내에 현상유지적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1차 설문분석서는 종단내에 수행과 전법을 이끌고 있는 승직자 분들의

바람과 사고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1차 보고서에서는 최근 다양하고 적극적인 변화하고 있는 타종단 활동과 비교해 우리 종단의 경향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번의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 종단은 많은 과제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분석의 결과만으로는 단위 사원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올바른 대안, 체계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 실정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 활동계획 등은 스승들의 요구와 같이 '총기30년 특별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역조사, 현장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 ◆ 특별기획단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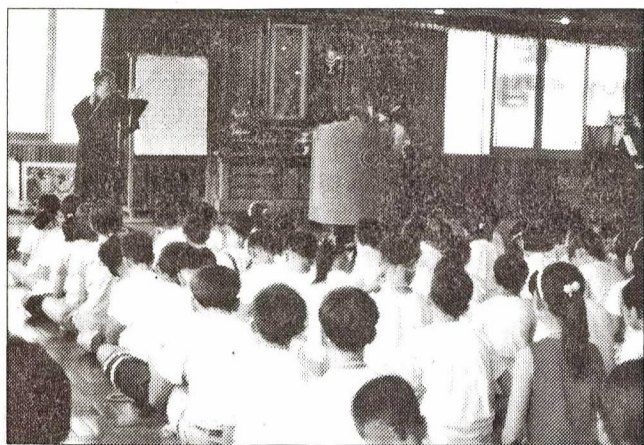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아갈 방향 ③

자성학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어린이 포교는 종단의 미래를 좌우한다. 사진은 자성학교 법회 장면.

자성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원 소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포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일 경우에는 사원과 자성학교의 24시간 개방으로 일과가 끝나고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수업을 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상업지구인가, 주택밀집 지구인가도 점검되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도 단독주택인가, 아파트단지인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이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점이다.

작된 자성학교가 제대로 진행되어가고 있는지를 중앙기구의 전담직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들에 대한 보수와 운영에 대한 일정액은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는 이와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안들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운영하는 사원이 없거나 운영할 뜻이 없다면, 앞으로의 포교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의사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신행수기

큰 서원과 넓은 마음으로...



총지사 김정례 보살

내가 신행수기를 쓴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다. 남들보다 수행이 많이 된 것도 아닌데 괜한 일을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오는 새로운 교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3남 1녀를 둔 나는 자식들을 다 키워 놓고 이제는 손주들의 재물을 보고 살만큼 나이를 먹었다. 지나온

간다고 하면 꼭 같이 가고 싶어하는 손주가 계속 부처님 품안에 있을 수 있도록 어린이 불교학교가 많으면 좋겠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불공도 등한시 하다가 힘겨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매달린다는 말이 맞는가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3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기자로 일하는 신문사에 IMF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또

부처님법을 만나서 베푸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날들을 이야기 하자면 밤새워 이야기 해도 모자랄 나이가 된 것이다. 똑똑하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할 때는 현교 절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제도를 하고 열심히 다녔다. 그러다 남편과 사별하고 마음 한 곳이 빈 것같은 사는데 의욕이 없던 차에 사는데 사는 언니 집에 갔다가 성화사 절에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총지종과의 인연이었다.

절이란 곳이 어디든 다 같겠거니 생각했는데 불상도 없고 현대식 건물이라 좀 놀랐다. 보살님들의 불공 모습도 생소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차츰 불공의 묘미가 느껴졌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임신 하면 자꾸 유산이 되곤 하였다. 불공을 하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불공을 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것이 불공 덕으로 아이를 얻게 되니 기쁨이 컸다.

손주는 불공해서 낳은 아이라 남 다르다. 불법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 지난 여름 어린이 수련법회에서 몸마니반메움이 뛰나고 질문을 해서 무척 놀랐다. 내가 절에 불공하러

받았으로 불공을 했다. 그 불공 덕을 봐서 이들은 진급을 하고 인정되었다.

요즘에는 불공하는 재미가 절로 난다. 그 전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불공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 담은 불공으로 바뀌게 되었다. 원과 그곳이 넓고 커지니 불공도 깊어지고 내마음도 편안하여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부처님법 귀의해서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니 마음도 넉넉해진다.

요즘에는 함께 절에 다니는 딸과 더불어 불공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려고 한다.

불공 덕을 본 막내 며느리도 절에 자주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법문에서 "베푸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들었다. 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신행생활에서 커다란 변화였다. 그래서 더욱 복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몸마니반메움

불교동화

가난한 여인의 등불

김혜경 (법정원 교무)

어느 마을에 이집 저집 다니면서 밥을 빌어 겨우 먹고 사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한 날은 온 성인이 떠들썩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왕께서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연등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곳이 북적거리는 것이라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슬픈 생각이 들었다. '아! 왕은 복을 많이 짓는구나.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는데 돈이 없어서 어찌지?' 당장의 배고픔도 잊고 여인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 몇 시간동안 겨우 동전 두 닢을 얻어 여인은 기름집으로 갔다. 기름집 주인은 가난한 여인이 기름을 사러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았다.

"이 기름은 어디에다 쓰려고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뵈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이제 그 부처님을 뵈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난 가난해서 아무 것도 공양할 것이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켜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그런 좋은 일인데 내가 가난히 있을 수

없지요." 기름집 주인은 여인이 돈 보다 더 많은 기름을 주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목을 밝히면서 속으로 열심히 빌었다. '보잘 것 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여인이 켜 등불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난다는 등불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부처님이 주무시지 않으므로 손으로 등불을 끄다. 그런데 여인의 등불은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았다. 불을 끄려고 애쓰는 아난다를 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불도(佛道)란 하나의 보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백천의 보시로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겸손하여 남을 존경하고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된다.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건강상식

협심증



김내과 의원 원장 김옥희

심장은 출생부터 일초도 쉬지 않고 혈액을 온 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심장근육 자체도 끊임없는 영양 공급과 산소를 필요로 한다.

이런 두꺼운 심장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한다. 관상동맥은 뇌혈관과 함께 동맥경화가 진행될 때 가장 손상 받기 쉬운 혈관이다.

동맥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근육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것이 '흉통'으로 나타나며 바로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협심증은 곧 흉통으로 연상되지만 실제 협심증의 초기 증상은 목을 죄는 듯한 답답함, 앞가슴 가운데를 짓누르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체한듯한, 혹은 속쓰림, 위통과 같은 위장 증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왼쪽 가슴의 통증은 협심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전형적인 협심증은 운동시에 증상

이 나타나고 안정하면 통증은 곧 소실한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내경이 적어도 70~80% 막힌 후에야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동맥경화 초기에는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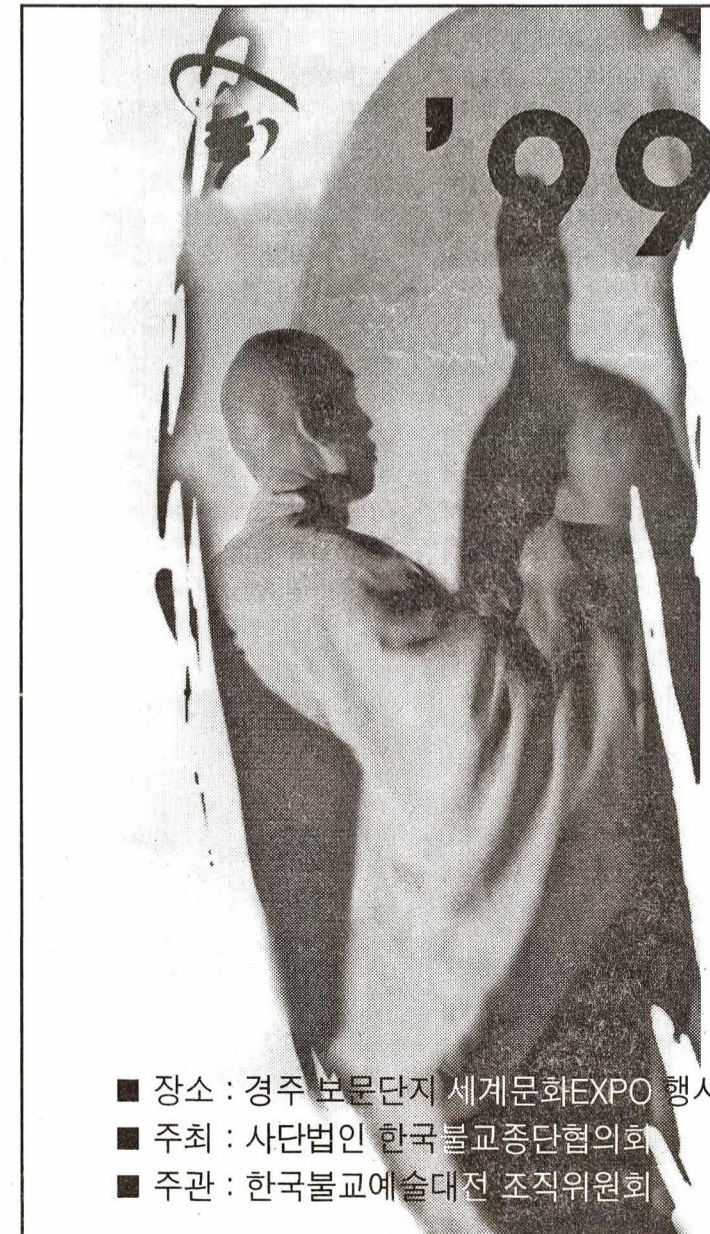
모든 질병에서 마찬가지로 동맥경화는 완전치유가 불가능하므로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치명적인 관상동맥 협착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의 5가지 위험요소는 흡연, 비만, 당뇨,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혈중이다. 특히 금연이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4~5회, 또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 최근 인스턴트 식품과 자동차 문화의 발달은 협심증 발생연령을 더욱 낮추고 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음식은 섬유소가 많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협심증 예방차원에서 훌륭한 식단이 된다.

치료는 관상동맥혈류를 증가시키는 약물요법과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외과적 치료가 있다.

김내과 의원 (053)792-5115

광고접수 02) 508-8933



'99 한국불교예술대전

37일간의 불교예술여행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벤트

- 종단의 날 - 25개 종단의 문화소개 및 포교활동
● 화혼의식 - 불교 전통 혼례의식 재현
● 선무도 무술시범 - 스님들의 야외무대 무술시범
● 스님 레크레이션 - 스님이 진행하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무대공연
● 공모행사 - 찬불가 공모행사 - 불교 합창제 - 불교 관련 캐릭터 공모
● 공연 - 육법공양의식 - 부산여대 행정 무용단
- 대구불교방송예술단 - 임옥자 한국민속 무용단
- 꽃공양 대법회 - 김미자 무용단
- 영산재 - 양길순 무용단
- 인간문화재 임옥자의 춤 - 이영미 무용단
- 박진진 무용단 - 아마미 보컬(Rock Live Concert)
- 박진희 상명여대 무용단 - 불자수 공연
- 이경화 전통춤 - 시연 퍼포먼스
- 김미숙 무용단 - 동국 국악 예술단
- 변지연의 춤

전시

- 주제관 - 영상관 - 불교문화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 상영
- 전시관 - 한국불교 역사, 문화, 의식, 실물모형전시
- 법당 - 법당 복원 및 관람객 예불의식 참여
- 공연장 - 불교 관련 특별초청 공연
● 예술관 - 미술관 - 전통회화, 조각, 현대미술, 목판화, 의상전, 사진전
- 유물관 - 문화재급 사찰 유물전시
- 건축관 - 불교사찰 건축양식과 건축모형
● 체험관 (작가들의 시연등을 통한 우수한 불교문화 체험)
\* 체험프로그램 - 필만대장경 판각, 만다라, 선화, 불화, 민화, 한지 제작 체험
● 용품관(불교소품 전시판매)
● 전통사찰음식관(사찰음식소개 및 시식공간)
● 사리친견
● 크스님 대법회

■ 장소 : 경주 보문단지 세계문화EXPO 행사장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 : 한국불교예술대전 조직위원회



# 교계 뉴스

## ‘한국불교예술대전’ 지난 30일 개막

4월 30일 ~ 6월 5일 까지 37일간 대장정의 제전



▲ 한국불교문화를 집대성한 전시와 축제의 장 ‘한국불교예술대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96년 ‘불교문화제전’에 참가한 본 중의 행사장면.

### 경주 보문단지 엑스포장에서 다채로운 행사 열려

1600년 역사의 한국불교문화를 21세기 중심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제전의 장이 지난 4월 30일부터 경주 보문단지에서 펼쳐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각 정당 불자회,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하는 이번 ‘한국불교예술대전’은 한국의 불교예술문화를 집대성한 축제의 자리로서, 우리 불교계가 새 천년을 준비하고 21세기 정신문화의 중심에 서는 계기로 삼는데 본 행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렸던 경주 보문단지내 엑스포장에서 4월30일부터 6월 5일까지 37일간

펼쳐지며, 행사 내용은 크게 전시와 축제의 장으로 나누어져 꾸며졌다.

행사의 주를 이루게 되는 5개의 전시장에서는 각종 불교예술문화들이 전시되고 있다. ◆주제관은 영상관과 전시관, 법당으로 나뉘어져 영상관에는 불교문화 다큐멘터리 상영, 인간문화재공연 등이 꾸며졌고, 전시관에는 한국불교의 역사, 황룡사 9층목탑, 팔만대장경 등 불교문화재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고, 법당에는 삼존불과 금불상 3천불을 봉안하여 예불을 올리고 있다.

◆예술관은 불화, 불상, 동양화 등 예술인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 사찰유물과 문화재 등을 전시하고 있는 유물관, 전통건축모형, 사찰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는 건축관으로 나누어 꾸며졌다. 또한 이 예술관에서는 부처님

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티베트의 만다라와 모래 만다라 시연, 팔만대장경 관각 재현, 선화 전시 및 시연, 박정자 불화 전시 및 시연, 한국 민화 전시 및 시연, 한지 제작 시연 등이 펼쳐지고 있다. ◆용품관에서는 불교관련 용품 및 기념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전통 사찰음식관에서는 사찰의 음식을 시식할 수 있다. 이들 5개 코너 외에 특별관으로 남북 불교 서화 교류전이 열리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서예, 동양화, 문인화 등 진품 100여점이 전시되고 있어 북한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종단의 날’을 정해 한국불교의 대표종단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본 종단은 5월 25일(화요일)을 ‘종단의 날’로 정하고, 연합합창단 공연, 밀교전통의 의식 시연, 밀교법구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행사장은 지난 세계문화엑스포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행사장 사방을 자비의 광장, 중도, 진리, 나눔의 광장 등 4개의 광장으로 나누어져 각 장마다 독특한 행사가 연일 펼쳐지게 된다. 또한 손오공 캐릭터쇼, 탐돌이 퍼레이드 등 20여종의 상설공연과 큰스님법회, 남북통일기원 10만 등 달기불사 등 각종 특별행사도 마련돼 한국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사의 개막식은 본 중 총지와 통리원장과 효강 법장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고산님 등 교계 대덕스님과 신나군 문화관광부장관, 정재계 인사, 지역인사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엑스포행사장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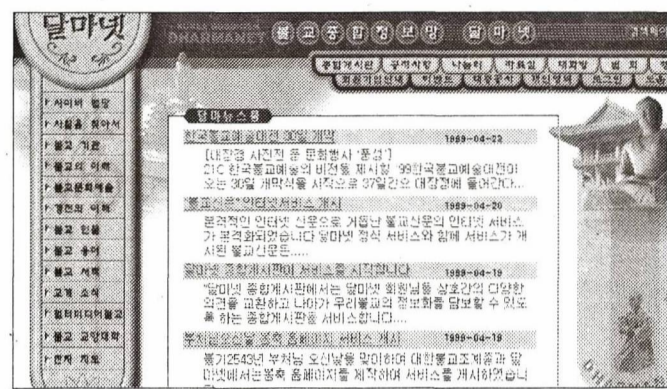
## 불교인터넷, 학문·포교등 각 분야 개설

### 불교정보서비스 ‘달마넷’ 등 개통

#### 불교학 연구단체 각종 서비스제공

요즘 불교계에서는 불교의 각종 정보와 학문관련 정보들을 서비스하는 인터넷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어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개통한 본 중의 홈페이지를 비롯,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http://www.dharmanet.net)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난 2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불교학 관련연구단체들이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이 사찰단위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불교종합정보 인터넷 ‘달마넷’의 개통은 불교계 전체

에 커다란 관심을 주고 있다. 달마넷에는 전국 40여개 유명사찰과 각 신행단체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고승들을 소개하고 있고,

1천여개의 불교용어, 불교교리, 불교입문, 불교경전 등의 자료가 게시되고 있다.

또 불교학 연구와 관련된 홈페이지들이 상당수 개통, 운영되고 있다.

인도철학회 홈페이지, 교요한 소리, 불자출판회, 국제원효학회, 불교학당,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부다랜드 등이 그 대표적인 홈페이지이다.

이들 홈페이지들은 주로 불교관련 논문들을 실고 있어 불교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더 없이 좋은 인터넷 벗이 되고 있다.

## 제2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직지사서 개최

### 5월 25일~27일, 한국불교문화의 체험과 역사기행 프로그램 일정

본 중 총지와 통리원장과 효강 법장원장이 참석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를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북 김천 직지사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회는 ‘21세기의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불교도의 사랑’이라는 주제

로 기존의 세미나형식에서 탈피, 한국 불교문화의 체험과 역사기행 등의 일정으로 치르게 된다.

직지사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1백 20명이 참석 하는 등 양국에서 2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보면 ▶대회 첫날 오후에는 대구 동화사를 참배하고 저녁

간에는 양국불교 대표자회의와 저녁만찬을 개최한다. ▶둘째날은 직지사서 법요식을 갖고 오후에 동화사를 참배하게 된다. ▶마지막날에는 부여로 출발하여 불교전래 사슴비를 참배하고 태고종 봉원사에서의 법패공연, 롯데호텔에서의 저녁만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 부도위기의 불교TV, 사장에 허문도씨

### 5월 10일, 본 중 본산 총지사의 임시주주총회·정기이사회서 추대, 선임

경영악화로 부도 직전에 내몰렸던 불교TV가 새 사장 선임으로 한기탁 희망을 갖게 됐다.

지난 22일 마포 석불사에서 본 중 총지와 통리원장, 효강 법장원장 등 31명의 이사 중 1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교TV 정기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장에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을 선임하고, 5월 10일 본 중 총본산 총지사에서 각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이사회에서 사장과 대표이사 추대, 선임함으로써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위기 직전에 놓여있던 불교TV는 기

사회생하게 됐다.

그러나 당장 불교TV가 정상화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듯 하다. 부채해결과 운영자금조달, 조직강화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지난날의 경영실수를 분명히 가라앉아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불자들로부터 왜 불교TV가 위면을 당했는지 깊게 반성해야 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던 불교TV가 부도위기까지 오게 된 경위와 책임소재 추궁 등은 앞으로의 부도위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출



▲ 대표이사 선임으로 bfn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 5월 10일 본 중 총지사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장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불교TV발기 이사 종단인 본 중의 본산 총지사

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6일 신임 허문도 사장이 본 중 단을 예방하였다.

## 불교도 금강산 순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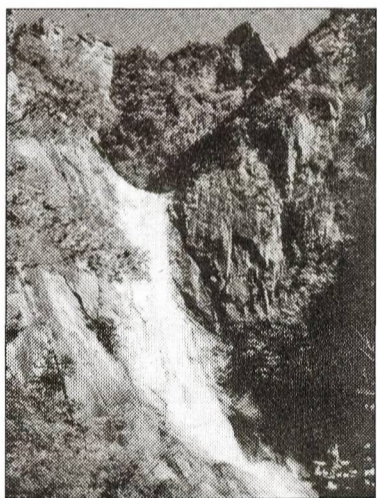
### 6월 2일 ~ 5일, 3박 4일간 일정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이루어지게 된다.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산을 순례하게 되는 이번 행사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진법회 ◆남북통일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금강산 신계사

아외법회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순례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금강산내 폐사지 복원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한편 이번 금강산순례를 통해 모여진 수익금은 전액 북한동포를 돕는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6월 2일부터 5일까지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금강산 순례에 오르게 된다.

###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 전정부 각자와 한영숙 보살.

## 수족침 무료 시술,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

### 노인층으로부터 큰 호응, 돈이 목적이 아닌 순수 봉사활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역삼노인복지센터」에는 요즘 지역 노인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주 수요일이면, 수족침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시술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무료봉사의 주인공은 바로 본 중의 본산 총지사 교도인 전정부 각자(불명:진공)와 한영숙 보살(불명:법등심)이다. 월초불공과 매주 일요일 자성불공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심심깊은 진언행자인 이들은 본 중단이 강남구로부터 수탁받아 지난 2월 16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역삼노인복지센터」에서 몸이 불편한 지역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무료로 수족침을 놓아드리고 있

다. 매주 수요일 오후1시에서 3시까지 보통 6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시술하고 있다.

특히 전정부 각자는 총남 서산의 지방 근무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면 서울로 올라와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또 일요일에는 ‘자성불공일’ 법회를 마치고, 우리 교도들에게 낯서간 온종일 무료로 침을 놓아 주기도 하고, 건강상담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 또 금요일 저녁 5시에서 10시까지 봉사를 하기도 한다.

이들의 수족침과 인연은 남다르다. 지방에서 결혼을 한 후 상경하여 경기도 안양에 살림을 차린 이들은 군포에 있는 성나자로 병원에 우연히 들리게 되면서 봉사의 인연은 시작된다.

전정부 각자와 한영숙 보살은 여기서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우리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 불공도, 침도 모두가 마음이 중요 절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가져야 ...

서 뭐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돈벌어서 자원봉사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막연하였으며, 남을 위하는 일이 꼭 돈을 벌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달은 이들 부부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직접 봉사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침을 배우기로 작정하였었다.

침을 배우는 것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봉터라고도 강남구 관할의 ‘수서사회복지관’에서도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주 1회, 매주 금요일 1시에서 4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이 70-80명의 노인들에게 침을 펴고 있다는 것. 그 시간에 이들 부부가 보살펴드리 는 노인분들은 10여명 정도. 대부분이 65-80세 노인들로 관절통을 호소한다고, 이들의 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포동’에서도 무료침을 계속된다. 동네 노인들에게 아픈 곳에는 침을 놓아드리고, 외로운 분들에게는 말벗도 되어 준다. 간단한 건 강관리 사항도 빠뜨리지 않는다.

50대 남자분에게 상담을 막 끝낸 전정부 각자는 ‘침을 놓는

것도 불공입니다. 침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뜸이나 침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며, 열심히 불공하고 지극정성으로 진언염송을 하면 효

과가 훨씬 더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육바라밀행을 보여주고 있다.



▲ 침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놓는다는 전정부 각자와 한영숙 보살.



인물탐방

‘선남선녀’를 한마음으로 ...

한마음 결혼상담소장 민혜경 보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성흔을 최우선에 두고 성실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지난해 9월 활동을 시작한 '한마음 결혼상담소' 민혜경 소장을 만나 본다.

소장님은 상담소를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초창기 총지중의 한마음 유치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 때 맺어놓은 인연들이 많아서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요. 얼마 전부터 전원주택을 하나 내 손으로 짓고 있습니다.

결혼상담소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신지요

▶ 신분이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신청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해 하고, 좋은 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소중한 것인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서도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접수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로 많으신지

▶ 주로 여자가 많지요. 7할 정도가 여성분들의 신청입니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많구요. 지방은 알음알음으로 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서울보다는 적지요.

신청한 사람들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 다른데는 어떤지 몰라도 한마음 결혼 상담소는 그렇지 않아요. 학력도 따지지 않고 빈부도 가리지 않지요.

사람의 인연은 소중한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요. 또 종교가 불교여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결혼 상담소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요

▶ 한마음 결혼 상담소는 좋은 일 하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신청하는데 약간의 실비를 내는 것 이외 결혼이 성사되면 얼마를 낸다는 부담은 없습니다. 유·무료 양로원 설립을 위해 좋은 일 한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꾸준히 보시금을 내기도 합니다. 결혼 상담소에서 정해놓은 액수는 없습니다. 돈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신청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파악하시는지

▶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 잔이요. 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중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의 됫됨이가 어떤지 작성한 구혼 신청서가 맞는지 확인하지요. 물론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많은 선남선녀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더 불어 양로원 설립이 빨리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btn 소식

임시주주총회·임시이사회 개최

불교TV는 지난 10일 이사종단인 총지중의 본산 총지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를 연속 개최하였다. 이날의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4월22일 정기이사회에서 선출된 신입사장 허문도씨를 불교TV사장으로 추대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이를 수락하고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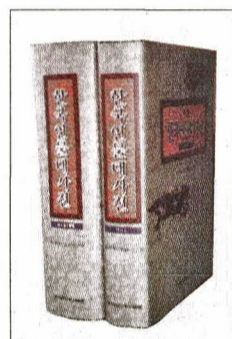
BBS 소식

불교방송 프로 개편

불교방송은 지난 4월 19일부터 프로그램을 일부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포교와 교양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신설된 프로는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4월5일~7월3일, 23:05-01:00), '천수경'(월-토, 24:45-01:00), '우리가락의 향기'(일, 14:05-14:50), '그리운 등불하나 1·2부'(일, 23:05-24:00, 24:00-01:00), '우리들의 찬불가'(월-토, 19:55-20:00), 'BBS녀적종합뉴스'(19:00-19:25), '부동산 경제' 등 7편이다.

신간안내

『한국인물대사전』



불교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승직자와 교계지도자, 한국종교발전에 이바지한 인물, 학문발전에 힘쓴 학자, 정치인, 법조인, 사회사업가, 예술인, 언론인, 독립운동가 등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총 1만 6천명여명의 생애와 사상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간/1절2권〉  
가격 190,000원

끝마디의 안쪽에 이루어진 살갓의 무늬, 사립마다 다름. 26)회답하여 보내는 편지, 회신. 29)심어서 가꾸는 채소, 채소의 우리말.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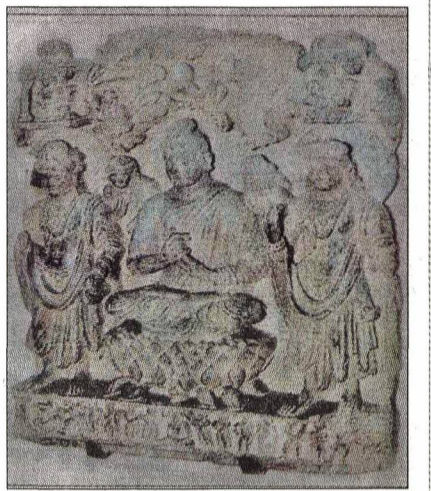
• 이정희 (부산 진구 부전2동 527)

전시의장

간다라 불교미술의 진수를 만끽

7월 1일부터 '예술의 전당'서 130여점 전시

인도불교 미술의 중심지 간다라지역의 불교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게 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예술의 전당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는 '간다라불교미술대전'은 파키스탄 정부의 무상임대료 이루어지게 된 것. 특히 이번 전시는 인도불교문화유산의 진품들이 진품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석조 양각의 삼존불. 간다라 미술의 걸작품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품은 간다라불상, 불전도(佛傳圖), 불두(佛頭) 등 총 130여점. 서울 전시회가 끝나면 9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부산시립박물관'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티벳 불교회화 '탕카' 한자리에...

9월부터 '화정박물관'서 전시



▲ 무상유가로 대표되는 칼라차크라 만다라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문박물관이 9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한빛문화재단(이사장 한광호)이 서울 이태원동에 200여평 규모로 꾸민 '화정박물관'은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인 '탕카'는 물론 불경과 불구류 등을 상설 전시한다. 탕카란 티벳 등에서 사원의 장엄용으로 밀교교리를 담아 그린 대형 불화이다. 티벳불화는 밀교교리에 따라 독특한 형식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색.

이번에 전시되는 '탕카'는 50여점이며, 불경 불상 불구류 등 150여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승·연·예

불자가수회 신임회장 남강수씨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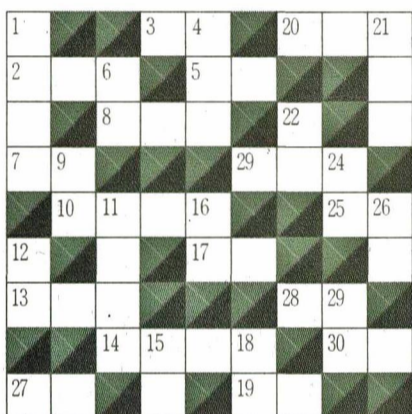
불교행사에 빠지지않고 참석하는 '대한불자가수회'. 이 불자가수회의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있었다. 임기만료된 원로가수 명국환씨가 회장에서 물러나고, 남강수씨가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

Grid of numbers for a puzzle: 1, 2, 3, 4, 20, 21, 6, 5, 22, 8, 29, 24, 9, 10, 11, 16, 25, 26, 12, 17, 13, 28, 29, 14, 15, 18, 30, 27, 19.

※ 6월 20일까지 총지중보 퍼즐마당 담당자 앞으로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중보법정원내 총지중보사

중지 퍼즐마당



가로글씨

2)기둥을 한 줄로 배치한 절 문. 3)부처님의 정도, 정법을 해롭게 하는 무리. 마귀. 5)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이층처럼 만들어 물건을 두거나 사람이 쉬기도 함. 7)동물의 왕, 고양이과의 맹수, 부처님을 비유할 때도 쓴다.

다. \*\*후, \*\*좌, 8)은갓 법이 공한 이치를 처음 깨달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10)석가족의 깨달은 사람. 여래. 13)조선왕조 숙종의 빈. 경종의 어머니. 역관 장현의 종질녀로 왕의 총애를 받음. 인현왕후를 폐하고 자신이 왕비가 됨. 14)법부의 신심과 이미 증득한 부처님이 배푸는 대비력이 융합해서 범부에게 본래 갖추어진 실력이 잠깐 동안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수양에 따른 실제상의 성불, 즉신성불. 17)몸에 느끼는 감각. \*\*온도. 19)석적이 무상정등정각의 대각을 이루신 것. \*\*절, 음 12월 8일. 20)인도에서 전통성왕이 나타날 때 꽃이 핀다는 상상의 식물. 3,000년에 한 번 꽃이 핀다고 상상. 23)화엄경 아승지검법에서는 124 대수중 제105. 25)몸음과 대담. 선종에서 제자가 묻고 스승이 대답하는 방법. 선\*\* 27) 불보살에게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는 불구. 108\*\*. 28)정법계 진언. 30)젊은 사람 머리에 섞여 난 흰머리카락.

세로글씨

1)수입의 10/1을 은혜를 준 상대에게 되 갚는 행위. 회사법. 4)밀교 태장계 만다라의 4대명왕 가운데 한 분.남방에 위치 재난을 방지. 6)지혜의 보살. 사자를 타고 있음. 9)철을 끌어 당기는 성질을 가진 물체. 지남철. 11)울음소리가 아름다운 꿩과의 새. 12)시체를 한데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소멸되게 하는 원시적 장사법. 15)초록별. 우리가 살고 있는 별. 16)독일의 철학자. 시인. 신은 죽었다고 주장. 18)불타의 본성. 불타가 될 가능성. 21)부처의 화엄이라고 이르는 대방광의 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22)지금 살고 있는 일생. 이 세상. 금생.←저승. 24)손가락

자연산 상황버섯! 각종 암과 고질병의 치유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상황버섯의 효능

▲ 면역기능향진과 해독작용의 측면

- 1. 소화기 계통의 암, 간암등의 각종 암의 절제수술후 화학요법을 병행할 때
2. 자궁출혈 및 대하, 월경불순을 포함한 각종 부인병
3. 심한기침, 간질환, 위통, 편두통 등의 각종 통증
4. 빈혈의 예방과 치료, 체력 강화 및 숙취제거, 변비에 탁월한 효과

▲ 암에 대한 약리적 효과

- 약리적으로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 있어 항암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암과 다른 병과의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상황버섯의 좋은점

- 1. 먹기가 좋고
2. 직접 자신이 제조할 수 있다는 점
3. 효과가 생각외로 빠르고
4.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

삼저지술



상황버섯

수입원 : 대륙무역상사
판매원 : 유원전재약품
연락처 : 011-304-4088
(02) 558-0577

오래된 봉나무 밑등에서 자라는 상황버섯! 세포의 해독작용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자연산 상황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전화를 주시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